국제유가 상승, 미-이란 2차 종전협상 관망하며 약보합 마감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미-이란 2 차 종전협상, 케빈 워시 청문회 등 관망 기조

- 미 증시는 DOW -0.01%, S&P500 -0.24%, NASDAQ -0.26% 약보합, Russell2000 +0.58% 상승. 업종별로도 1% 이내의 제한된 흐름, 소재 강세, 헬스케어, 유틸리티 약세
- 중동 상황이 주말중 재차 불확실성에 노출. 다만, 시장은 21 일 진행될 미-이란 2 차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관망. BofA 는 관세정책과 달리 이란 전쟁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TACO 를 적용하는 양상은 전쟁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이라 경고
- 21 일 케빈 워시 연준의장 후보 청문회 앞두고 국채금리 소폭 상승 10Y 4.252%(+0.8bp), 2Y 3.727%(+2.7bp)

다시 요동치는 유가 WTI $89.6(+6.9%) Brent $95.5(+5.6%)

- 이스라엘-레바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WTI 기준 $80 초반까지 내려왔던 유가는 주말중 해협 재봉쇄 및 미군의 이란 선박 나포 등 소식에 의해 재차 반등
- 다만 2 차 협상을 위해 미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이동 예정이며, 이란 측도 2 차 협상 참여에 긍정적이라는 보도에 증시 하방 제한
-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21 일부터 시작될 것이며, 휴전시한은 22 일 저녁(한국시간 23 일 오전)으로,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는 합의 체결시까지 풀지 않을 것이며, 합의가 없다면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

IGV(S/W ETF) 4 월 저점 대비 +17%↑ 숏스퀴즈 지속

- AI Disruption risk 부각되며 급락했던 S/W 업종 4 월 10 일 저점 이후 반등세. 전쟁 공포를 지워내며 빠르게 고점을 회복한 나스닥지수의 안도랠리와 동행, 저가매수세 유입 영향
- BofA 는 S/W 주 반등세를 과매도 상태에서의 평균 회귀 랠리라고 언급하면서도, S/W 주가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명확한 기술적 신호가 없어 향후 변동성 추가 확대 가능성 전망. 업종내 상대적으로 유망한 종목으로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팔로알토 네트웍스를 선정
- 번스타인은 AI 가 S/W 업계에 5 년 이상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다만 기존의 Disruption 우려는 과도하며, AI 를 접목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따른 총시장규모(TAM) 확장을 전망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INTC	인텔	-4.1%	목요일 실적 발표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주가 약세. 더욱이 모건스탠리는 AI 에이전트 구동에 따른 CPU 수혜를 전망하는 가운데, 차세대 '베니스' 칩을 보유한 AMD(-1.4%)가 인텔 대비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 투자의견 '비중중립' 유지, 목표주가 $41→$56 상향 조정
MRVL	마벨테크	+5.8%	구글(-1.3%)과의 맞춤형 AI 칩 2종 공동 개발 협상 소식에 주가 강세. 반면 4월 초 구글과 AI 칩 설계 파트너십을 연장했던 브로드컴(-1.7%)은 하락
ARM	ARM	+5.0%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AMD 외에도 Arm 아키텍처를 활용한 자체 칩 비중 높이며 중장기 성장 모멘텀 기대감. 한편 짐 크레이머는 모건스탠리의 보수적 분석을 반박, Arm의 자체 칩 개발 및 공정 혁신 속도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
AAPL	애플	+1.0%	장 마감 후, 팀 쿡이 CEO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전환, 후임으로 현재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존 터너스 임명 발표. 인사 발령 효력 발생일은 9월 1일. 팀 쿡은 올 여름까지 CEO직 유지 예정.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에 입사한 25년 차 베테랑. 아이폰, 맥, 아이패드, 에어팟 등 주요 제품군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
CMPS	컴퍼스패스웨이스	+42.0%	트럼프 대통령의 싸이키델릭(환각제) 의약품 심사 가속화 행정명령 서명 소식에 관련주 강세. FDA에 중증 정신질환 치료제로 유망하다고 지정된 싸이키델릭 의약품 심사를 가속화할 것을 지시. FDA 국장은 싸이키델릭 의약품에 대해 3개의 우선심사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일부 약물의 승인 기간이 단 몇 주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 밝힘